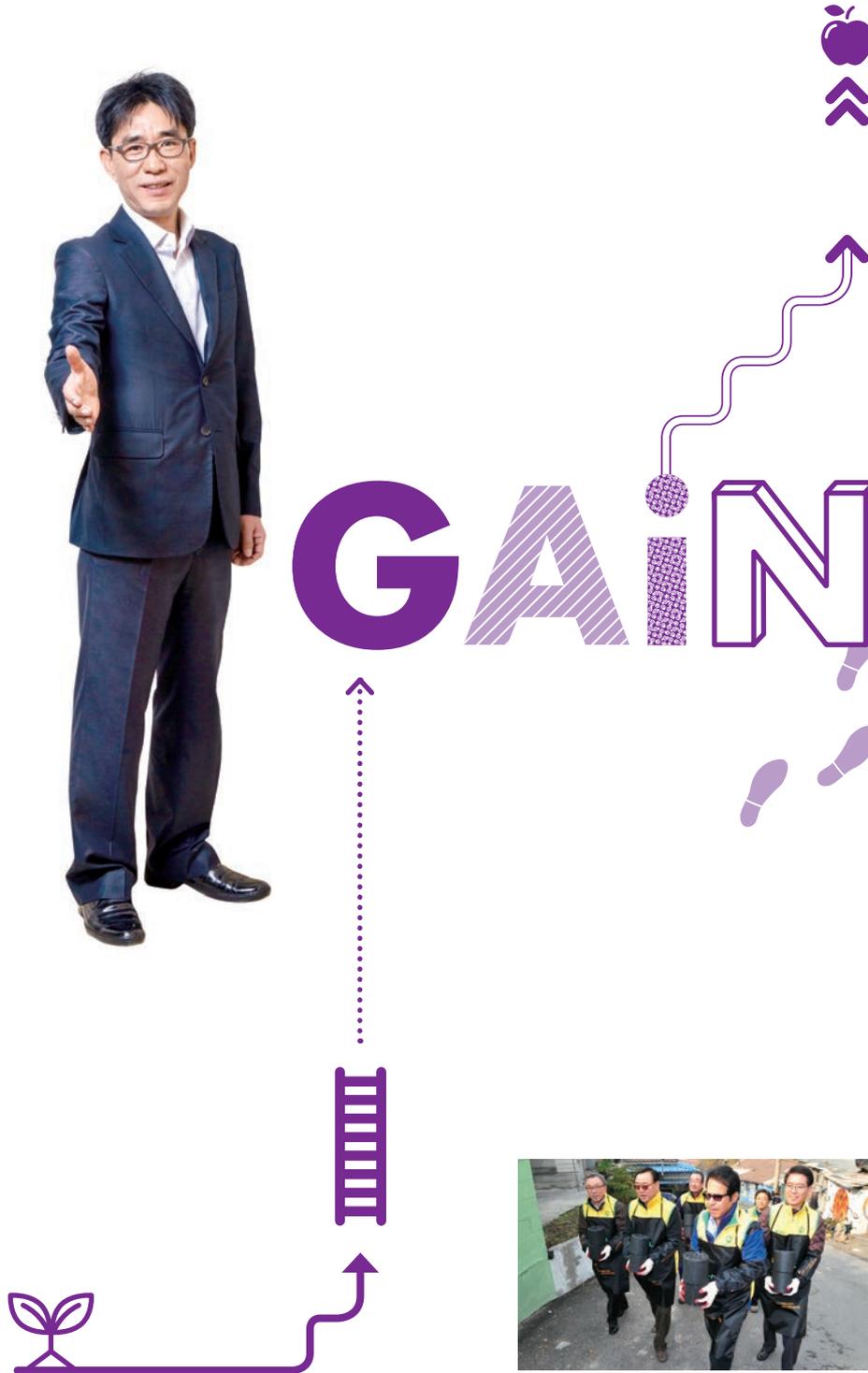


S-OIL MAGAZINE  
DECEMBER VOL.397



# GAIN



사랑의 연탄나눔



공장 사회봉사단 워크숍



### 표지이야기

9가지 전사전략과제 중 브랜드 마켓 중심의 내수 점유율 제고 (Brand market driven share gain in domestic market) 를 통해 회사의 성공적인 미래를 눈앞의 현실로 바꾸어나가는 청주지사를 소개합니다.  
(관련기사 13~17쪽)

통권 제397호

발행일 2014년 12월 4일

발행처 에스-오일주식회사 광고팀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공덕동 471)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편집·디자인 (주)디자인소호 02-514-5164

인쇄 (주)성환인쇄 02-2273-0583

## 04

### 주요소식

사랑의 연탄나눔

CEO와의 소통 세션

식품나눔차량 유류비 후원

올해의 우수학위 논문상

윤활기유 미국 고객 초청행사 외

단신



## 13

### 최강 팀

노련한 팀워크로 총복을 평정하다  
청주지사



## 18

### 햇살나눔

햇살나눔 캘린더

공장 사회봉사단 워크숍 & 서부지역본부 연탄나눔

햇살나눔 단신

## 24

### 소식 모아보기

울산복지재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인천저유소 소방의날 소방방재청장 표창  
 쌍용주유소 대표 소방의날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공장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국제 대학생 친선 축구대회

## 27

### 두런두런 수다방

아내와 딸에게 바치는 편지  
 입사 25년차 미서부 해외연수  
 본사·공장 야구동호회 교류전

## 32

### No.1 주유소

고객과 직원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흥은동 마봉신우주유소



## 34

### 가족 이야기

수험생 벗어난 아들과 가족 위한 아빠의 초대  
 수소3과 김기승 사우 가족

## 38

### 걷고 싶은 길

성곽에 담긴 역사 배우며 소요(逍遙) 즐기는 '지락(至樂)의 시간'  
 청주 상당산성 성곽길



## 42

### 나의 롤모델

인성 감, 멘탈 감, 실력 감, 성실의 천재  
 프로농구선수 양동근

## 44

### 야호! 축제다

환상적인 볼거리 가득한 겨울왕국  
 칠갑산얼음분수축제

## 46

### 열린 서재

소금과도 같은 우리네 아버지의 삶  
 박범신 '소금'

## 48

### 마음 읽기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나라  
 활자 중독

## 50

### 독자광장

# 한겨울 하얀 웃음으로 피어날 연탄

사랑의 연탄나눔

11월 11일 서울시 서대문구 '개미마을'에서 올해의 연탄나눔 봉사가 진행됐다. 나세르 알 마하서 CEO와 햇살나눔봉사단 100여 명은 높은 지대로 이어진 골목에 들어서서 연탄을 날랐다. 이날 우리회사는 총 5만 장의 연탄을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에 기증했다.

글 송경란 사진 전부순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3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약 1천800만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소중한 열원이다. 이 가운데 우리회사가 7년째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펼치고 있다.

마하서 CEO는 연탄에 대해 "서민 가정에 특히 중요한 난방 에너지 수단"이라면서 "오늘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햇살나눔봉사단의 정성이 이웃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

었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학생 10여 명이 동참했다. 사우디 학생들은 만만치 않은 연탄 나르기에 성심을 다해 참여하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기를 희망했다.

한낮에 시작된 연탄 배달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가운데, 햇살나눔봉사단은 한 명의 이탈자 없이 마지막 연탄이 이웃 가정의 창고에 쌓이는 것을 확인한 뒤 비로소 앞치마를 벗었다. 연탄가루

로 검게 변한 손과 얼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친 기색 없이 따뜻한 마음을 전한 봉사단의 모습에 근처를 오가던 이웃 주민들은 한결같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우리회사는 저소득가정의 난방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해마다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를 통해 연탄을 기부하며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 열린 소통으로 희망의 미래 그립니다

### CEO와의 소통 세션

나세르 알 마하서 CEO와 직원 간의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이 지난 11월 20일 마련됐다. 서울시 내 식당에서 진행된 이번 소통 세션에는 마하서 CEO와 입사 2년 차 이상의 젊은 직원 등 총 10여 명이 함께해 저녁식사를 나누며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 앞서 유연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직원 3명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소통에 좋은 화두가 되는 동시에 회사 경영과 발전방향을 함께 통찰할 수 있는 인문사회 분야의 흥미로

운 주제가 선정됐다.

첫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이동구 사우(동부영업 지원팀)는 FC바르셀로나 소속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를 다뤘다. 메시 선수가 최고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Impossible is Nothing'이라는 메시지로 축구 팬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것과 같이 우리 임직원도 긍정의 정신으로 위기를 뛰어넘어 최고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담았다. 이에 대해 마하서 CEO는 "우리회사 또한 현재 어려운 경영환경을 지혜롭

게 돌파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음 발표에 나선 박종호 사우(HYC/LUBE공정과)는 케이블방송 tvN의 드라마 <미생>을 통해 직장생활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업무에 임하는 젊은 직원들의 자세에 대해 짚어보고, 회사와 직원이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실마리를 찾았다. 마하서 CEO는 "직장인으로서 거대한 조직 안에 있다 보면 자칫 자신의 고유한 색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계하고 "발

우리회사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직원들이 CEO와 마주해 현재의 사업환경을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인문사회 분야의 흥미로운 프레젠테이션과 담소로 한가족의 마음을 다졌다.

글 강현욱(인력개발팀) 사진 전부순



표한 드라마 내용 중에 자신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말이 있었는데 큰 교훈이 될만하다”고 호평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민규 사우(관리회계팀)는 영화 <명량>을 소개했다. 총무공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불리한 상황을 딛고 왜적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회사도 중지를 모아 불리한 경영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마하서 CEO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결코 녹록하지 않지만 모두 합심해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직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이야기를 전하는 가운데 가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가족의 중심이 잡혀있으면 일도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자녀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직원들은 한가족의 마음이 되어 회사에 대한 애정을 되새기면서 현재의 파고를 뛰어넘는 자신감을 다졌다. 🌻

## 참가자 후기

**이동구**  
동부영업지원팀

처음으로 개최된 ‘CEO와의 소통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사원 10명이 CEO와 함께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저녁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발표자 3명 중 저는 가장 먼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의 취지를 살리고자 무겁고 딱딱한 주제보다 가볍고 듣기 편한 주제를 골라 발표했습니다. ‘impossible is Nothing’이라는 주제로, 축구선수 메시를 통해 본받을 점과 ‘어려운 환경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CEO께서는 메시와 CEO의 사진을 합성해 발표의 의미를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장을 보시고 매우 창의적이고 신선한 접근이었다며 즐거워하셨습니다. 평소에 축구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사우디아라비아 축구선수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주셨습니다.

발표 뒤 이어진 저녁식사에서는 업무얘기 보다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CEO뿐만 아니라 참석한 다른 직원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직원들 간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박중호**  
HYC/LUBE  
공정과

‘CEO와의 소통 세션’ 참가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많이 긴장했습니다. 게다가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로 선정돼서 더 긴장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유연해지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제 발표주제는 ‘미생을 통해 본 직장생활’이었습니다. 드라마 <미생>의 에피소드 속에서 젊은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는지 발표했죠. 이 점을 CEO께서도 궁금해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고른 주제였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회사와 직원의 공생 방향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CEO께서는 발표소재로 다른 드라마가 현재 방영 중인지 물어보시는 등 흥미를 보이시고, 교훈으로 삼을만한 내용을 짚어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날 저는 가정을 많이 생각하시는 CEO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추후에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잘 맞춰 회사와 가정 어디에도 소홀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 부릉부릉 이웃사랑 신고 달려라

## 식품나눔 '푸드뱅크' 차량 유류비 후원

우리회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식품나눔사업의 차량 운영을 위해 유류비 1억 원 후원에 나섰다. 후원금품은 끼니를 걱정하는 이웃들에게 먹을거리를 운반하는 푸드뱅크 차량 유지에 사용된다.

글 구기청(홍보팀) 사진 전부순

11월 20일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에서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서 우리회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주유상품권 1억 원어치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차회사인 에쓰-오일토탈유회사도 1천만 원 상당의 윤활유를 지원했다.

우리회사가 쾌척한 후원금품은 농어촌 지역 푸드뱅크 100곳에 전달돼 저소득 가정, 홀몸 어르신, 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게 식품을 배달하는 푸드뱅크 차량의 주유와 윤활유 교환에 사용된다. 우리회사는 재정적인 문제로 식품배달 차량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차량 유류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는 식품의 생산·유통·판매·소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먹을거리를 식품 제조업체나 개인들로부터 기탁 받아 복지시설, 저



소득 가정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복지사업이다. 유류비 후원 전달식에 참석한 류열 수석부사장은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 푸드뱅크 사업은 ‘제2의 수확’으로 불리며 크게 활성화돼 있다”며 “우리회사의 차량 유류비 지원이 농어촌 지역의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끼니를 걱정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정이 담긴 먹을거리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염원했다. 🌻





## 기초과학 연구 열정을 지원합니다

과학문화재단  
**‘올해의 우수학위 논문상’**

우리 과학문화재단이 과학자 5명을 우수 연구자로 선정해 연구비 1억 4천500만 원을 지원했다. 우리회사는 재단을 통해 기초과학 분야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 강영옥(과학문화재단) 사진 전부순

‘제4회 올해의 우수학위 논문상’ 시상에서 과학자 5명이 우수 연구자로 선정돼 연구비 1억 4천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에 열린 우수학위 논문상에서 대상에 서울대 유민하(수학 분야) 씨와 카이스트 원혜정(생물학 분야) 씨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장려상 수상자로 박진형(한국과학기술 · 수학) · 조현우(포항공과대 · 생물학) · 최진혁(부경대 · 지구과학) 씨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 수상자에게 각 5천만 원을,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각 1천500만 원을 연구비로 지원했다.

우수학위 논문상은 물리 · 화학 · 수학 · 생물학 · 지구과학 등 5개 기초과학 분야의 학술연구 지원을 위해 2011년 제정한 것으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총장협회의 추천에 따라 우수 연구자를 선정해 연구비를 후원하고 있다.

우리회사는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학술연구지원 및 장학사업,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차세대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1년에



공익재단인 ‘S-OIL 과학문화재단’을 설립했다.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서 학문적 열정과 인내심으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젊은 과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주역임을 환기하고 그 안정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과학문화재단은 선도과학자 펠로십 표창, 과학영재아카데미 후원, 개발도상국 과학자에 기술 전수 등 과학 분야의 연구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윤활기유 미국 고객 초청행사



▲ 윤활기유 일본 콘퍼런스



## 세계시장 여는 열쇠는 신뢰입니다

### 윤활기유 미국 고객 초청행사 및 일본 콘퍼런스

우리회사와 윤활기유 제품을 세계 고객에게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미국과 일본에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우리 제품에 대한 확신을 새로이 하고, 윤활기유 시장 동향에 관한 값진 정보를 나눴다.

글 최승민 · 신현오(윤활기유해외마케팅팀)

윤활부문이 11월 13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필립스66'사와 공동으로 '미주 윤활기유 고객 사은 만찬' 행사를 열었다. 매년 11월 AFPM(American Fuel & Petrochemical Manufacturers) 콘퍼런스 기간에 개최해온 이 행사는 올해로 8년째를 맞이했다. 이를 통해 우리회사는 세계 고객들에게 우리 제품을 널리 알리고 잠재고객을 발굴하면서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해왔다. 경쟁사 증설로 공급경쟁이 심화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회사는 전략적 파트너사인 필립스66와 함께 이번 만찬을 통해 현지 고객들에게 '울트라S' 제품을 소개하며 인지도를 제고했다. 이 자리에는 윤활기유 고객사, 첨가제사, 물류회사, 시장정보지 관계자 등 고객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해 시장정보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보다 앞선 10월 17일에는 일본에서 윤활기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나고야 메리어트 아소시아 호텔에 마련한 이번 행사는 2008년 이후 6회째로, 현지 중소규모의 윤활유사를 대상으로 우리 제품과 기술특성을 소개하는 한편 윤활기술 동향과 시장정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약 50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우리회사와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윤활기유 시장 동향에 대한 값진 정보를 교류했다. 

# S-OIL NEWS



## 정유영업본부 성과우수지사 시상

정유영업본부가 올해 3분기 성과우수지사를 선정하고 지난 11월 17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성과 우수지사로 인천·포항·강릉·안동지사가 선정되었고 청주지사가 성과 개선지사로 상을 받았다. 분기별 성과 우수지사는 판매실적·수익성·신규주유소 확보실적 등이 포함된 판매지사 영업성과 평가와 당사 영업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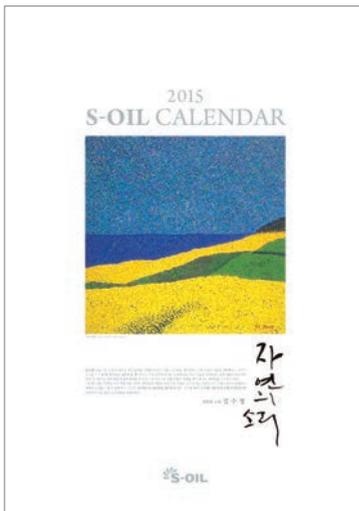
이행도 등이 포함된 중점 추진과제 이행 반영도 평가로 심사하며 상위 4개 지사에 시상한다. 또한, 전 분기 성과 개선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1개 지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 노란경품대잔치 '황금구도일' 주인공 탄생

주유소·충전소를 이용하는 보너스카드 고객 대상의 '노란경품대잔치'가 11월 한 달간 지속된 가운데, 1등 경품인 '황금구도일(순금 20돈)' 당첨 고객이 나왔다. 우리 회사는 올 한 해 성원을 보내온 고객에게 보답하고 희망의 에너지를 전하기 위해 '노란경품대잔치'를 열고 주유고객 150만 명에게 DSLR 카메라, 핸드크림, 구도일 열쇠고리 등 행운의 경품 당첨 기회를 제공해

왔다. 1등 당첨의 행운을 거머쥔 한규찬 고객(경북 포항시)은 경품 전달식을 통해 우리 임직원의 축하를 받고 기쁨을 나눴다.



### 친환경성 살린 새해 달력 발행

2015년 달력이 발행, 배부됐다. 이번 달력은 김수정 화백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그림·탁상 달력과 기능성을 살린 3단 달력을 포함해 3종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탁상 달력은 친환경성을 고려해 제작됐다. 철제 링 대신 종이 재질의 고리를 적용해 폐기 시에 분리 배출할 필요가 없다. 한편 그림·탁상 달력을 장식하고 있는 김수정 화백의 작품은 무수한 색점을 찍어 형상을 완성하는 점묘법으로 독창적이면서도 따뜻한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인사동정 보직변경

**11.5** 임봉섭(1급,업무부장)→RUC본부장 보좌역(프로젝트 대외업무) 김영배(2급,업무부 경리과장)→업무부장(대행) 손길상(2급,기획분석팀)→공장예산관리파트리더 손광호(2급,기술교육팀)→기획분석팀 공장예산관리파트리더

**11.20** 한동규(2급,생산구매지원팀)→총무팀 이재훈(4급,홍보팀)→부동산관리팀 TS&D Center 건설파트 장서영(4급,판매계획/분석팀)→구매팀 김승배(5급,운영지원팀)→홍보팀 김태준(5급,총무팀)→구매팀

**11.25** 최경락(군산저유소 선임계장)→군산저유소 방수혁(군산저유소)→군산저유소 선임계장(대행) 송미영(일반사무직3급,유타마케팅전략팀)→유타운영팀

**12.1** 정태성(3급,고객서비스팀)→프로젝트구매부문 정명하(3급,저유관리팀)→수송팀 노상래(4급,수송팀)→저유관리팀 김영규(4급,감사팀)→수급운영팀

**12.15** 김준호(2급,직영주유소관리팀)→프로젝트구매부문

#### 입사

**12.1** 조은숙(3급,TSC개발팀)

#### 퇴직

**11.13** 김지홍(4급,석유화학공정팀)

#### 부음

- 11.5** 양동환(경리과) 병부
- 11.8** 황두현(연료연구팀) 조모
- 11.11** 장민정(구매팀) 외조부
- 11.13** 이승구(인천저유소) 병부
- 11.18** 최병원(프로젝트구매부서) 조모  
김정윤(해외운영팀) 외조모

- 11.22** 하대일(변화혁신추진팀) 부친
- 11.25** 김선현(품질보증팀) 병부
- 11.27** 김창식(품질보증팀) 병모
- 11.29** 이회일(관리회계팀) 모친  
진대중(유황2과) 부친

#### 결혼

- 11.15** 채만기(서부영업지원팀)
- 11.23** 서지현(영업전략팀)
- 11.29** 김대경(설계1과)
- 11.30** 금동언(Aromatics생산1과)  
백경민(전기과)  
이진권(탁구단)  
김형수(탁구단)
- 12.6** 김낙중(업무팀)  
김진욱(수급운영팀)  
박성수(석유화학운영팀)
- 12.7** 전민서(올레핀사업개발팀)
- 12.13** 남건우·심수영(환경팀)
- 12.14** 김영준(TSC개발팀)

## 9 Corporate Initiatives



### 브랜드 마켓 중심의 내수 점유율 제고

- High margin portfolio through RUC and olefin investment
  - Capacity expansion through overseas partnership
- On-going business innovation within core and beyond

## · Brand market driven share **gain** in domestic market

- Overseas stable customer base expansion via partnership
  - Global standard in SHE management
  - Best-in-class operational excellence
- Strategic HR and mgmt. infra upgrade for performance drive
  - Stakeholder communication enhancement



# 노련한 팀워크로 **충북을** 평정하다

## 청주지사

업계의 불황소식이 심심찮게 뉴스 판을 달구는 요즘 내수의 고삐를 죄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비단 우리회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시장 최전선에 있는 영업지사는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투나 마찬가지다.

청주지사는 난세의 영웅처럼 상승세의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치열하게 노력한다.



윗줄 왼쪽부터 이병석 · 하승수 · 배병수 · 정재학 · 오봉선 · 신정현 사우  
아랫줄 왼쪽부터 최정은 사우, 정희윤 지사장



**몽치재! 달성하자! 즐기자!**

청주지사의 팀원은 모두 여덟 명이다. 그중 정희윤 지사장을 포함한 세 명이 올 4월에 이곳으로 동지를 옮겼다. 사람은 바뀌었다지만 그렇다고 조직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는다. '몽치재! 달성하자! 즐기자!'라는 청주지사의 슬로건처럼 정 지사장은 부임 첫 달부터 그 목표의 첫 번째인 '팀워크'를 탄탄히 몽치기 시작했다.

"조직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과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그건 한두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팀워크입니다."

청주지사의 직원 가운데 근속기간이 제일 짧은 이의 연차만 해도 무려 20년이다. 영업직원 모두가 출중한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이라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하라' 따위의 말은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거듭날 청주지사에 필요한 것은 '해야겠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새로운 동기부여와 열정이었어요. 제 역할은 그 부분을 정성 들여 강조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뿐이었죠."

고생은 헛되지 않았다. 새롭게 분위기를 쇄신하며 노력했던 2분기가 지나고 7월로 들어서자 그간에 쓴 성과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수고는 3분기 누적영업성과 평가에서 성과 개선지사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지사를 새로 정비한 후 단시간에 이룬 굵직한 성과였다.



**'해야겠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새로운 열정으로 청주지사가 뛰고 있다



우리 업계는 언제나 큰 흐름 속에서 주기적으로 요동쳐 왔고 어려운 현 시기도 그 주기의 일부일 따름이다. 하지만 때가 때인 만큼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가지'는 많고 '두 가지'는 없는 충북**

청주지사는 옥천과 영동을 제외한 충북 전 지역에 총 97개 계열주유소를 관할한다. 지역이 넓다 보니 가장 멀리 있는 단양의 주유소까지 가는 데만 청주에서 편도 2시간 반이 걸린다.

충북은 전국에서 인구 대비 주유소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전국 인구대비율이 2.8%, 약 160만 명에 불과한 인구에 비해 주유소 비율은 자그마치 5.4%. 약 두 배다. 게다가 정부에서 적극 지원



💧  
 청주지사는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어나가며  
 꼭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  
 💧

하는 알뜰주유소를 비롯해 비 정유사 계열 주유소와 농협주유소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가득이나 주유소가 많아 가격 경쟁이 심한데 이 세 종류의 주유소마저 그 수가 만만치 않다 보니 판매여건은 더 어렵기만 하다.

“예전에 CEO께서 청주지사를 방문하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충북에는 두 가지가 없다’고요. 이곳에는 바다가 없고 대규모 공단이 없습니다. 유류 수요가 많으려면 그러한 지리적이고 지역적인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산악으로 둘러싸인 여건으로 보면 충북은 소박한 시장입니다.”

청주지사는 이 악조건들을 돌파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여갔다. 청주지사가 맨 먼저 해결한 사안은 현안 주유소들의 거래정상화다.

“주유소들은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가격이 싸야 한다든지, 신용거래가 필요하다든지, 주유소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거래를 정상화해 나갔죠.”

또 하나는 신규 주유소 유치에 박차를 가한 점이다. 어려운 중에도 영업력이나 자금력을 갖추고 있거나 지역 수요가 좋은 등의 소위 될 만한 조건을 갖춘 주유소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신규 주유소 한 개를 유치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안다.

“정말 힘듭니다. 주유소 하나가 새로 들어서면 모든 정유사가 경쟁합니다. 주유소 하나를 유치하려면 담당자와 두세 번 만나서는 절대로 성사되지 않아요. 우리 직원 중에는 어떤 곳을 1년 넘게 접촉한 끝에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쉽지 않죠.”

그런 때는 직원 한 사람의 정성이 담긴 맨파워가 진가를 발휘한다.

이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주유소 대표들은 ‘에쓰-오일 직원들은 다른 정유사에 비해 정도에 어긋남 없이 진솔하고 최선을 다한다’며 그 특징을 평가한다. 덕분에 청주지사는 올해 목표인 여섯 곳의 신규 주유소 유치를 훌쩍 뛰어넘는 아홉 곳의 달성도 무난하게 했다. 더욱이 청주지사 직원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 이상의 신규 주유소 유치 실적을 달성했다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결국 팀워크입니다. 조직의 분위기라는 게 옆 사



람이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방향으로 전개돼 왔어요.”

### 균형을 유지하며 버텨내는 일

알뜰주유소가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청주지사는 우리회사가 전국 170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공급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에 발맞추는 것을 중점 근무이슈로 삼고 실행 중이다. 덕분에 현재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수와 물량 모두가 전국 22개 지사 가운데 수위를 달리고 있다.

회사와 주유소 간 가장 가까운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지사 입장에서 장기고객인 주유소의 입장과 회사의 입장을 잘 고려하는 일은 늘 주요한 과제다.

“이럴 때일수록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쉽지 않은 올해도 이만큼의 성과를 일궈냈으니 선부른 걱정은 불필요한 업계 전망에 비관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죠.”

모든 사업 파트너와 관계 맺기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신뢰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보급처 가운데 우리회사를 선택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주유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요즘 고객들에게서 예전 같은 여유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 시기를 함께 겪어나가며 꼭 좋은 결과를 내고 싶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 청주지사는 모두가 즐겁게 일하고 값진 결실을 함께 즐기자는 각오를 새로이 한다. 정희윤 지사장의 시선이 슬로건이 담긴 액자에 닿는다.

청주지사는 성과우수지사 시상에서 받은 상금으로 얼마 전 회식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그 자리의 건배사는 이랬다. “이대로! 쭈우~욱!”

영업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호가 원하는 것을 나누는 삶의 기술일 것이다. 그 사실을 청주지사가 내년에도 거침없이 증명할 듯하다. 

## MINI INTERVIEW



정희윤  
청주지사장

### 청주지사는?

▶ 직원 수는 지사장을 포함해 모두 8명입니다. 저와 여직원을 제외한 6명이 모두 영업 일선에서 뛰고 있죠. 저는 공주지사에서 올해 4월 청주지사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베테랑으로만 구성된 청주지사인 만큼 제 역할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 도움을 주고 일에 대한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 청주지사만의 영업노하우는?

▶ ‘팀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사의 슬로건은 ‘몽치재 달성하자! 즐기자!’입니다. 한두 명으로는 절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뭉치면 성과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 직원들에게 한마디

▶ 우리 지사는 관할 지역이 무척 넓습니다. 제일 멀리 단양까지 가려면 편도 2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타 지사보다 상대적으로 인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추위 물리치는 따스한 손길 '햇살나눔'입니다

2014년 11월 전사 각 단위 햇살나눔

때 이른 추위 사이로 포근한 날이 찾아오듯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봉사단의 손길이  
우리의 이웃에게 따스함을 전합니다. 햇살나눔봉사단의 11월 활동입니다.

11

NOVEMBER

1



**강남지사**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가 봉사단은 나눔바자회 준비 및 생활용품 판매를 진행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창원지사** 봉사단은 사회복지법인 함께걸음에서 운영하는 도림원에 찾아가 장애인들의 재활활동을 체험하면서 그 생활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2



**사진동호회** 봉사단은 어린이 다연이의 가족 사진촬영과 담도폐쇄 어린이 도윤이의 가족 사진촬영을 진행해 두 배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4



**구미지사** 봉사단은 구미적십자나눔터를 찾아가 배식봉사 및 청소를 통해 나눔의 즐거움을 누렸다.



**아산지사** 청솔노인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한 봉사단은 생필품을 전달하고 환경정비활동을 펼치는 한편 집 주변 산책에 동행해 말벗이 되어드렸다.



**중부영업지원팀 · 중부네트워크관리팀** 생명의전화중합사회복지관을 찾아가 봉사단은 시설에서 어르신 생신잔치를 열고 식사 및 환담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분해3부** 해밀어린이집 어린이들과 천마산 편백나무숲에 찾아가 봉사단은 숲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꽃과 나무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물을 이용해 놀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산지원부문** 문수실버복지관 어르신과 외부활동에 나선 봉사단은 케익만들기, 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8



**분해1부** 봉사단은 약사경로당에 외부강사를 초빙해 '휴지 조각의 변신'을 주제로 뱀아트 실습시간을 가졌다.



**울산지사** 봉사단은 울산중구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했다.

12

13

18



**분해2부** 시각장애인과 함께한 봉사단은 정서지원 및 체력증진의 일환으로 자전거를 타며 한낮의 햇살을 즐겼다.

20

22



**품질관리부 · 품질보증팀** 봉사단은 울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20명을 모시고 경주 버드파크 나들이에 나섰다.



## 더 크고 굳건해진 봉사의 마음

### 공장 사회봉사단 워크숍

글 윤수현(대외업무팀)  
사진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봉사단이 11월 6~7일 영남알프스펜션에서 간사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우리 봉사단과 사회복지기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부서별 봉사단 리더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2010년부터 기업체 봉사단 중 최초로 사회봉사 워크숍을 개최한 우리회사가 올해엔 11월 6~7일 이틀간 영남알프스펜션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워크숍에는 부서별 봉사단 리더, 울산지역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외부강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자원봉사활동 리더 소양교육, 봉사자 협동심 증진 프로그램, 봉사활동



중간점검, 2015년 지원사업 발전방안 논의, 운동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봉사활동의 방향성을 새로 정립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리더십 관련 특강과 협동심 향상을 위한 서바이벌 게임으로 봉사자 개인역량 강화를 모색한 데 이어, 2014년 봉사활동 중간점검과 2015년 사회공헌지원사업 발전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저녁식사 뒤 미팅을 겸한 레크리에이션 시간은 전문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활기차고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워크숍은 각 부서 봉사단의 리더에게 전문적인 봉사 소양을 함양하는 한편 상호 신뢰와 공감을 쌓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 지역사회 훈풍이 되는 햇살나눔

서부지역본부 연탄나눔

글 한경선(서부지역본부)

서부지역본부 사회봉사단은 매년 광주광역시 우산동에 위치한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올해엔 11월 22일 토요일 아침,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연탄을 나눴다.



연탄이라고 하면 우리 부모 세대의 어린 시절에나 존재할 것 같지만 추운 겨울을 연탄에 의지하며 보내는 저소득 가구는 여전히 우리 가까이 존재한다. 낙후된 동네라서 그런지 골목길의 폭이 매우 좁고 불규칙했지만 한편으로는 곳곳에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아주 새까맣고 기름진 연탄 1개의 무게는 무려 3kg. 쉽게 보다간 큰코다치는 무게다. 아침 일찍 연탄을 배달할 동네에 다다르자, 동네 어귀에 쌓아둔 연탄을 보고 마을주민분들께서 하나 둘 나오셨다. 그리고는 당신들도 연탄이 필요하시며 어디서 봉사활동을 나왔는지, 어떻게 하면 연탄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다. 사무실에서 지척인 거리에 아직도 이렇게 연탄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할머니 한 분께서는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는데도 직접 믹스커피를 타주셨다. 연탄 나르는 일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할머니께서 이 연탄으로 따스하게 보내실 생각을 하니 뿌듯했다.

마침내 봉사활동을 마친 직원들은 마을 어귀의 한 식당에 모여 점심을 먹으며 봉사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감을 나눴다. 이날 서부지역본부 사회봉사단은 연탄처럼 뜨거운 사랑 속에 행복을 느꼈다. ☀



# 위로와 희망으로 사랑은 커갑니다

## 햇살나눔 활동 이모저모

나눔으로 전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들불처럼 번진다. 사우디아람코 후원으로 소아화상의 상처를 씻고 꿈을 키우는 한 고교생이 감사의 마음과 함께 나눔 실천의 뜻을 전해왔다. 한편, 우리회사는 부상과 순직의 아픔을 간직한 소방관과 그들 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며 송고한 의지가 잊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대신했다.



### 부상 소방관 격려금 및 순직 소방관 유가족 위로금 전달

글 한윤철(운영지원팀)

우리회사가 11월 6일 '부상 소방관 격려금 전달식'을 열고 지난 6월 건물에 갇힌 시민을 구조하다 추락한 강서소방서 김민하 소방사(29)에게 치료비 200만 원을 전한 것을 비롯해 화재진압, 응급구조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전국의 소방관 30명에게 격려금 6천만 원을 전달했다. 뒤이어 7일에는 강원도에서 수중 훈련 중 순직한 소방관 유족에게 위로금 3천만 원과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故 고영호 지방소방위(경북북부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는 11월 5일 고성군 인근 해상에서 심해 수중 인명구조 훈련 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순직했다.

5학년이 될 즈음, 특히  
덕분에 다시 지론을 받  
가4라는 꿈이 생겼고,  
을 희망했고. 후회자 분  
전 문장으로 실용음악을  
배웠습니다. 학원에  
살아간다는 생각에 매일  
그럼에 학교생활도 즐겁  
정말로 보답하려면 나  
저처럼 하고 싶은 일을,  
꽃하는 친구들에게 도움  
제가 앞으로도 꿈을 위해  
대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사우디아람코 후원 소아화상 환아 감사편지 사연

글 신영철(운영지원팀)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사우디아람코가 한림 화상재단을 통해 화상 어린이 치료비 지원을 펼쳤다. 이를 통해 치료를 받고 고교생으로 당당하게 성장해 꿈을 키워가고 있는 학생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우리회사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 향후 화상 어린이비 치료비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 고마우신 후원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당곡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건 세 번의 수술과 몇 년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시고, 지난 일 년 동안 제 진료를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배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는 분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생후 18개월 때 양팔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해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지만 가정 사정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될 즈음 해당 병원의 복지과에 계신 김시내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수의 꿈을 가지면서 실용음악과 진학을 희망했고,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지난 일 년간 전문적으로 실용음악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배우며 살아간다는 생각에 매일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 덕에 학교생활도 즐거워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받은 도움을 보답하는 길은 제 목표를 이뤄 저처럼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하고픈 일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지우 드림



# 어제의 최선이 오늘의 보람으로



## 울산복지재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글 심규역(대외업무팀)  
사진 박석수(대외업무팀)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펼쳐 복지증진에 기여한 울산복지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임직원이 합심해 지역에 특화한 나눔을 지속한 가운데 뜻깊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 인천저유소 소방의날 소방방재청장 표창

글 정관식(인천저유소)

인천저유소가 소방산업대상 시상에서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임직원은 표창을 계기로 안전점검과 비상대응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저유소 시설과 설비 안전을 수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11월 24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에서 열린 '소방산업대상' 시상에서 인천저유소가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인천저유소는 위험물 설비(탱크, 소방설비 등) 유지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투자를 지속해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은룡 저유소장이 참석해 회사를 대표해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소방산업대상은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시상제도로, 소방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기여한 주체를 대상으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시상 가운데 인천저유소는 소방시설안전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표창 수상을 계기로 우리 직원들은 소방설비 관리와 시설 안전유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



## 쌍용주유소 남철중 대표 소방의날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글 한재희(수원지사)

소방의날을 맞아 경기도 화성 소재 쌍용주유소의 남철중 대표가 안전행정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남 대표는 지역 소방행정 발전은 물론 지역 선도활동과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복지재단’이 11월 24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이웃사랑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KBS가 공동주최하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나눔을 실천하는 주체들을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회사는 울산복지재단을 통해 온산지역에서 재배한 무공해 쌀을 수매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 왔으며, 이는 지역 농가와 불우이웃을 동시에 지원해 지역 사회공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 부서단위로 봉사단을 조직해 장애인, 노인,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별 특화된 봉사활동과 나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11월 7일 수원지사에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쌍용주유소의 남철중 대표가 화성소방서에서 열린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안전행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것입니다. 남 대표는 화성시의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았습니다. 쌍용주유소는 1997년부터 우리 브랜드와 함께 성장해 오면서 2008년도 챔피언스클럽 우수상, 2011년 특별상에 이어 2013년 대상에 오른 선도적인 주유소입니다. 남철중 대표는 봉사단 활동을 비롯해 이웃을 위한 폭넓은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번 수상에 대해 남 대표는 “에스-오일과 더불어 주유소 명성에 걸맞은 활동을 지속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최우선 가치는 바로 안전

### 공장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 클 안호경(안전과)

온산공장에서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합동훈련 참여자들은 비상상황 대응훈련을 성공리에 완수하며 안전실천을 다짐했습니다.

11월 4일 온산공장 옥상출하과 출하장에서 온산소방서를 비롯한 23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 훈련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 종합훈련을 통해 사고 수습 능력을 배양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훈련상황은 옥상출하장에서 등유 출하 작업 중 유량계 고장을 가정했습니다. 이동탱크 상부 유창으로 등유가 누출되고 정전기에 의해 화재가 나면서 초기 진화지연으로 이동탱크로리가 폭발, 인명사고와 출하시설 전소가 발생한 가상 시나리오가 수립됐습니다. 이에 따라 온산소방서를 비롯한 기관·단체가 유기적으로 비상상황에 대응 훈련한 결과, 신속한 화재 진압과 단기간 복구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훈련에 동원된 369명의 인력은 장비 56대가 총출동한 가운데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대응훈련을 성공리에 완수했습니다.

우리회사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기적인 대규모 훈련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 점음으로 마음 나눈 화합의 장

## 국제 대학생 친선 축구대회

글 강영옥(운영지원팀)

한국의 대학생과 외국 유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공감과 화합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낮에 축구대결을 펼친 데 이어 밤에는 '사우디 축제의 밤'을 즐기면서 스포츠와 문화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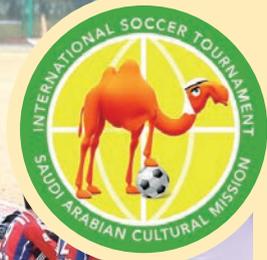
우리 과학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주한사우디아라비아문화원이 주관하는 국제 대학생 친선 축구대회가 11월 8~9일 안산 호수공원 천연잔디구장(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대회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과 외국 유학생 간 친선을 도모하고 아랍권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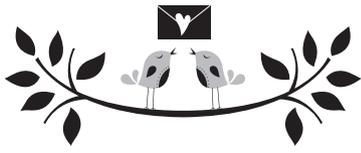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외국 유학생과 아랍권 국가의 주한대사, 후원기업체, 언론매체 등 350여 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가 참여해 기부와 봉사를 실현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됐습니다.

현장은 이채로운 문화가 교차하는 공감과 화합의 무대였습니다. 한낮에 12개 축구팀이 잔디구장을 뛰면서 선의의 대결을 펼친 데 이어, 저녁에는 '사우디 축제의 밤'이 열렸습니다. 참가자 모두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전통음식이 제공된 가운데 아랍어로 이름 쓰기, 아랍식 헤나 피부염색, 아랍 전통의상 체험과 포토존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문화를 뛰어넘은 친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승부보다는  
정정당당하게!





# 사랑하는 아내와 귀요미 공주 하쥬에게♡

아내와 딸에게 바치는 편지

하창원 계기과

2015년 올미년 양띠 해를 맞아 글재주는 없으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아내와 귀요미 우리 공주 하쥬에게 편지를 씁니다.

요즘 육아로 힘들어하는 아내, 주말부부로 생활하면서 육아를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진심으로 미안해. 2015년에는 하루 빨리 우리 세 식구 모여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오순도순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봐요. 얼마 전 결혼 1주년 때도 챙겨주지 못했는데 힘들게 육아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애처롭게 보여 눈물이 나더라고.

자녀계획은 결혼 3년 뒤부터라고 했는데 덜컥 우리 하쥬를 임신해 기쁜 마음 반, 걱정 반 교차했던 그 순간! 산부인과 가서 우리 하쥬 심장소리를 처음 듣고 무한 감동하며 잘 키워 보겠다고 우리 다짐했었지. 다짐했던 그날로부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우리 하쥬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가고 있네. 하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건 자기관 장모님 덕분인 것 같아.

자기 출산 임박했다고 연락 받았을 때 울산에서 대구까지 가는 동안 만감이 교차해서 어떻게 도착했는지도 모르겠어. 분만실 도착했을 때 웃으면서 반겨준 당신 모습에 안도하면서 함께 웃었지. 무통주사를 맞으면 태아에게 해롭다고 무통주사를 거부한 채 5시간의 진통을 참아낸 뒤 우리 예쁜 하쥬가 태어났지. 그때 출산 마치고 "당신 초산 맞아?"라고 한 농담은 너무 대견해서 한 농담인 것 알지? 자기가 분만실에서 겪은 진통과 고통을 함께해보니

대한민국 엄마들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 군대 이등병 생활 10년치 고통을 한 번에 받는 느낌!

사랑하는 우리 딸 하쥬~!

아빠 딸 하쥬~♡ 엄마와 아빠의 딸로 태어나줘서 진심으로 고맙고 늘 부족하고 서툰 초보 엄마, 아빠지만 우리 딸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커서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줬으면 좋겠어.

아빠는 엄마한테 프로포즈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 인생은 험난한 바다처럼 굴곡이 심해서 좌절과 행복이 교차하는 순간이 수도 없이 오겠지만, 내 인생의 종착점까지 곳곳이 향해할 테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침반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고. 우리 하쥬도 배에 단 듯처럼 엄마 아빠가 거짓 없이 열심히 사는지 늘 지켜봐주고 힘차게 나아가길 수 있도록 하자.

우리 세 식구 파이팅~~!

늘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이쁜 공주 하쥬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

- 1 다양한 하창원 사우 부부
- 2 건강하게 백일을 맞은 하쥬를 위해 우리 가족이 뭉쳤습니다
- 3 귀요미 하쥬 공주예요!



1



2



3



## 동고동락한 동기와 함께라면 끝없는 사막도 천국!

입사 25년차 미서부 해외연수

서정환 해상출하과

길고 긴

사막의

끝에서

사우와 아내,

우리

모두는

우애를

확인했다

멀고도 먼 땅,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미국! 나를 포함해 입사 25년차 동기인 이병원 · 노민석 · 김중호 · 장세천 · 엄기훈 · 송광호 사우들이 부동반으로 미국서부 여행에 나섰다.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해 12시간 반 만에 LA공항에 도착했다. 하늘에서 본 LA공항은 꽤나 큰 공항이었는데 막상 내리고 보니 그저 오래된 공항으로만 느껴졌다. 지문 찍고, 사진 찍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들로 입국심사는 어찌나 까다롭던지! 기나긴 입국심사를 마치고 이번 여행에 참가한 일반인 가족 등 전체 42명이 모여 서로 가볍게 인사하고 57인승 대형버스로 향했다. 우리를 믿고 미국 서부를 달려줄 이동수단이다.

첫날 일정은 무리하지 않게 잡혀 있었다. 우리는 간단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LA영화세트장에서 유명한 영화들의 촬영장을 보는 것으로 하루일정을 마쳤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한 조식을 하고 버스에 올랐다. 4시간 여 동안 사막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그랜드캐년. 과연 '신이 만든 작품'이라는 별명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비행기를 타고 40여 분 가량 구경하면서 경치에 흠뻑 빠졌다.

다음날은 그랜드캐년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오밀조밀한 브라이드캐년을 구경했고 그 다음날은 웅장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방문했다. 버스는 지칠 줄 모르고 달렸다. 인디언들이 남북전쟁 때부터 터전을 잡고 살았던 인디언 보급자리와 탄광촌 구경도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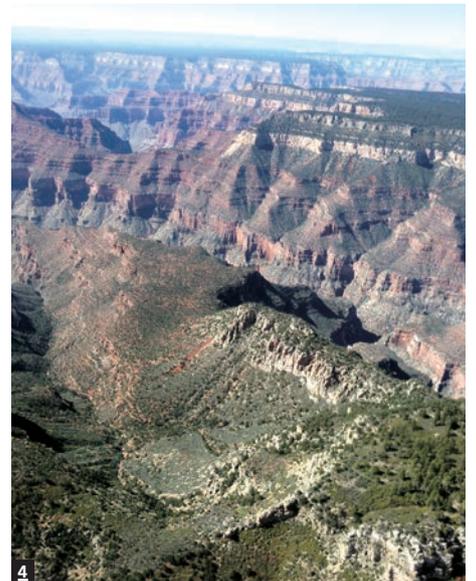
미국 땅이 넓긴 넓은지 가도 가도 끝이 없다. 달리고 또 달리다 보니 이젠 모두가 지칠 즈음, 캘리포니아에 들어서니 포도 농장과 코코아 농장이 펼쳐진다. 눈에 다 담지도 못할 정도로 펼쳐진 포도밭과 코코아나무들을 보고 우리는 입이 딱 벌어졌다.

그런데 달리다 보니 문득 눈에 띄는 것이 있다. 고속도로 주변에 1미터 높이의 철조망이 쳐져 있었던 것. 미국인들은 동물들이 도로에 뛰어 들어 차량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고자 이렇게 길고 긴 철조망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미국인들의 차량의 안전과 동물보호활동에 열정이 느껴졌다. 긴 사막의 끝에 미서부의 마지막 관문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지나 라스베가스에 당도했다. 도박과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 과연 전 세계인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느껴졌다. 우리가 머문 호텔 1·2층도 모두 도박장이고 대중 잡아 봐도 수천 명이 저녁에 도박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 일행도 재미삼아 한켠에서 슬롯머신에 달러를 넣고 라스베가스를 경험해보았다.

라스베가스에서의 체류가 마지막 일정이었다. LA에 도착 후 지나온 7일 동안 우리는 버스로 무려 4천 킬로미터를 달렸다고 한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버스로 달리는 투어는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이 힘들었고 일행과 저녁에 회포를 나눌 시간조차 없이 꿀아떨어졌지만 회사 입사 25년차 동기가 함께한 부동반 여행이라는 점에서 감사했다.

회사에서 마련해주 부동반 여행이기에 회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보

다 좋은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도가 좋았고 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좋은 기회였다. 부부 간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행을 다녀왔다고 생각한다. 함께해준 우리 사우들과 아내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



- 1 그랜드캐년에서 우리 부부
- 2 경비행기 타고 날아오르자
- 3 샌프란시스코 하얀역시 금문교
- 4 그랜드캐년의 절경



명예를 건

한판승부,

서로의

실력에

박수를

보내며

우정

나눴습니다



# 야구공 108개 실밥에 화합을 심다

본사·공장 야구동호회 교류전

이용현 네트워크강화팀





올봄 공장에서 반가운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공장 야구팀 사공성 감독님의 전화였다.

“올해에도 야구동호회 교류전 한번 해야지요!”

공장 챌린저스와 본사 선사인즈, 본사 선사인즈와 공장 챌린저스의 교류전 붐부터 계획했던 사내 야구동호회 교류전은 찬바람이 불 때쯤인 11월 1일이 돼서야 여주 양섬야구장(경기도 여주시 하동)에서 열렸다.

2012년 남해 1차 대회를 시작으로 2013년 경주대회까지 상대전적 2승 2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한 채 열린 3차 교류전이기에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다. 더욱이 공장 챌린저스는 울산 최고의 리그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상태였고 본사 선사인즈는 리그 플레이오프에는 못 올라갔지만 11승 4패로 리그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전력을 보유한 상태였다. 각 팀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한판 대결을 펼치기에 충분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

심판의 경기선언 뒤 원정 온 공장팀 챌린저스의 선공으로 3차 교류전이 시작됐다. 공장 챌린저스는 새벽부터 울산을 출발해 장거리 원정을 온 팀이랴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몸이 가벼워 보였다. 본사 선발 에이스 김구현(리스크관리팀) 선수의 3이닝 3실점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골고루 터진 챌린저스의 타선에 본사 선사인즈는 힘겨운 경기를 이어갔다.

더블헤더 첫 경기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선사인즈는 왼손 에이스 주웅선(네트워크강화팀) 선수를 구원으로 올렸지만 챌린저스의 강타선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반면 챌린저스는 전신열(제품운영1과) 투수의 완투로 본사 선사인즈 타선을 잘 막아냈으며 수비에서는 우중간을 가르는 직선타가 될 뻔했던 공을 우익수로 나선 김준련(분해2과) 선수가 그림 같은 다이빙캐치로 잡아내 승부의 불꽃을 피웠다. 결국 1차전은 9대5로 공장 챌린저스가 승리했다.

15분을 쉬고 다시 열린 더블헤더 2차전. 선사인즈는 두 경기 모두 챌린저스에게 내줄 수 없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인 끝에 9대7로 승리하며 상대전적 3승 3패로 균형을 맞추었다.

대회를 거듭할수록 에러 없는 깔끔한 수비와 몸을 아끼지 않는 허슬 플레이, 완투능력을 갖춘 투수, 잘 맞은 타격 등 선수들의 기량이 날로 높아

지고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여 경기 내내 흥미진진했다. 치열한 승부이기에 경기 중 신경전도 대단했지만 멋진 플레이와 타구가 나올 때면 상대팀 선수에게 박수를 쳐주고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스포츠맨십이 빛난 경기였다.

경기 뒤 이어진 뒤풀이는 홈팀 선사인즈의 이용현(네트워크강화팀) 총무의 사회로, 지난 1년 동안 못 다한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는 동료 간 친목과 화합의 장이 됐다. 공장 챌린저스의 신입팀원 권형운(자재관리과) 선수는 “공장과 본사 간 이런 멋진 동호회 교류가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10년이든 20년이든 이런 교류가 계속되도록 앞장서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본사 선사인즈의 공병수(소매관리팀) 선수는 “올해 선사인즈가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진 한을 챌린저스가 리그에서 우승해 풀어 주기를 바란다”며 덕담을 더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올해 양 팀의 소속리그와 사내 교류전은 막을 내리지만 내년에도 있을 리그 경기와 교류전을 향해 우리는 야구 열정으로 겨울을 녹일 것이다. 짧지만 행복했던 만남을 뒤로하고 내년에는 리턴매치로 울산에서의 제4차 교류전을 기약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

1 2014년 제3차 교류전을 기념하며  
2-4 일구, 일구에 집중하는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



# 고객과 직원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홍은동 마봉신우주유소

서울시 홍은동의 신우주유소가 마봉신우주유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난 10월 10일 운영을 재개했다.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주유소를 꿈꾸는 마봉신우주유소를 찾아갔다.



**(주)마봉 영업부문장 전 재 유 상무**

**마봉신우주유소는?**

10월 10일 새로운 마음으로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소장부터 총무까지 주유소 운영 및 근무경험이 많은데 길게는 20년 경력을 가졌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직원과 함께 모든 고객과 지역 주민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오와 목표**

각각의 주유소는 자신만의 색깔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봉신우주유소는 품 세차와 하부세차가 강점이고 이 특징을 유지하고 강화하려 합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주유소, 한결같은 평가를 받는 주유소가 목표입니다. 또 (주)마봉은 상생의 파트너십으로 에스-오일 주유소 운영점을 계속해서 늘릴 계획입니다.



**셀프주유소지만 고객과의 거리는 항상 3m 내**  
 마봉신우주유소는 이전에 신우주유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우리 계열 주유소였다. 그런데 전 주인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면서 운영에 공백이 생겼다. 고객 불편 해소와 이미지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주)마봉이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보였다.

“신우주유소는 대략 2달가량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희 (주)마봉은 안양에 에스-오일 마봉한진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새로운 지역에 주유소를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죠. 결국 에스-오일 지사의 추천을 받아 이곳 흥은동에서 마봉신우주유소가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봉신우주유소는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지만 여성과 나이가 많은 고객 등 셀프주유에 서툰 고객을 위해 직원들이 항상 주변에서 대기한다. 또한 고객과의 거리는 항상 3m 내로 언제든지 고객에게 서비스할 자세를 유지한다.

“여성이나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셀프주유를 꺼리는 편입니다. 셀프 주유를 어색해하는 젊은 남자 고객도 많고요.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먼저 말을 걸고 서비스합니다. 고객이 셀프 주유를 하는 중에 전면유리를 닦는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는 부분은 세차다. 고압세척기를 새로 도입했고 세차 세제도 고압세제를 사용한다. 또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 고압세차인 하부세차와 품 세차를 실시하고 있다. 고압세차는 물론 기본세차 시에도 고압분사기 애벌세차 서비

스, 세차 뒤 마른수건으로 꼼꼼하게 물기를 제거하는 서비스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비스로 기억되는 주유소, 고객이 먼저 알아주는 주유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주유소를 꿈꾼다**

“저희는 2015년 말까지 주유소 열 곳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유소인 마봉신우주유소를 운영하는 경험은 이후 주유소 개업에 노하우로 적용되겠지요. 비록 지금은 정유업황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3년 뒤에는 반드시 정상화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주유소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경제에 기여하는 주유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다짐처럼 마봉신우주유소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주유소 뒤편에 위치한 직업재활센터에 자원봉사를 나가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주유소 임금은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직원 이든 아르바이트 직원이든 계속해서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적절한 평가 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등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봉신우주유소는 고객과 지역사회, 직원과 함

께 성장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 희망이 우리 브랜드와 함께 곧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마봉신우주유소**



흥은동 명지전문대학 인근 명지대입구 교차로에 위치한 마봉신우주유소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한다. 총원 4명이 근무하는 작지만 알찬 셀프주유소다. 셀프주유소지만 고객이 불편하지 않게 다가가고 서비스하는 주유소를 지향한다.

서울시 서대문구 가좌로 106 (흥은동 379-6)  
 ☎ 02)304-5522

# 수험생 벗어난 아들과 가족 위한 아빠의 초대

수소3과 김기승 사우 가족



올해도 어김없이 수험생들은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치렀고 그 날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다른 날보다 추웠다. 분명한 건 그들 모두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 김기송 사우는 수능을 마친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사보 참여를 결정했다.

### 왁자지껄, 훈훈한 가족의 저녁식사

한적한 언덕 위에 위치한 고깃집에 김기송 사우의 가족 세 식구가 들어선다. 첫째인 딸 김다혜 양이 학교에서 바로 오기로 했는데 조금 늦는다고 완전체가 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김기송 사우는 호탕하게 웃는다. 아내 전영순 씨와 둘째인 아들 김태민 군도 느긋하게 앉아서 여유로운 웃음을 지어 보인다.

이윽고 음대에 재학중인 첫째 딸까지 합류해 가족은 완전체가 되었다. “사보 이벤트 참여라는 걸 늦게 알렸어요. 최대한 깜짝 이벤트가 되었으면 했거든. 그전까지는 얼마 전 수학능력평가시험을 본 아들 녀석 수고했다고 한 톱 내는 걸로만 말해 뒀지요.”

김기송 사우의 가족은 가족 4명이 만든 SNS 단체방으로 수시로 소통한다. 그래서인지 이벤트 참여에 대해서 늦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식당으로 왔다. 시험은 잘 봤느냐는 질문에 아들 대신 김기송 사우가 답한다.

“시험지 자~알 보고 왔겠지.”

그런 아버지 앞에서 아들 김태민 군은 씩씩하게 웃음으로 답한다. 시험 얘기 대신 “아버지, 많이 드십시오!” 하고 말하는 아들을 보니 이 가족의 유쾌함은 유전이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족의 눈빛이 빛난다. 단순히 음식 때문은 아니었다. 밝고 따스한 기운이 작은 방 안에 가득 찬다. 건강한 가족이라는 증거다. 김기송 사우는 각자의 재능도 많다고 전한다. “딸은 음대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해요. 늦게까지 연습하고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딸을 믿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지는 않고요. 아들은 중학생 때 사격 선수였지요. 울산대표로 여러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도 많이 냈지요. 아내요? 아내는 ‘하고재비(무슨 일든지 안 하고는 배기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경상도 말)’예요. 유물해설 도슨트 활동도 했고 도예, 바리스타에 도전하기도 했죠.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는걸요.”

### 건강하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유쾌상쾌 개그콘서트 가족

유쾌한 대화 속에 식사가 이어졌다. 고기를 맛있게 굽고 그걸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게 좋다는 아들 옆에는 딸 김다혜 양이 앉아 있다. 음식이 떨어져 김태민 군의 옷에 묻자 김다혜 양이 “휴지 줄



盡人事待天命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저희 집안 가훈입니다





우리 가족은 솔직하다  
거칠지 않은 솔직함이기에  
상처보다 깨달음을  
주고받는다



까?” 하고 말한다. 그러자 “평소에는 이런 적 없으면서?”하고 핀잔한다.  
딸은 씩 웃는다.

“솔직한 게 매력적이죠? 우리 가족은 솔직해요.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할 땐 들키지 말라고 하죠. 워낙 얘기한 건 다 허용하는 편이니까 거짓말  
할 이유도 없죠.”

쿨한 가족이다. 얘기한 걸 다 허용한다는 말은 허용할 만큼의 요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저희 집 가훈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에요. 집에 가면 액자안  
에 커다랗게 쓰여 있어요.”

천륜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의 노력을 게을  
리 하지 않는다. 정신이 맑고 건강하면 다른 건 아무렇지도 않다고 아빠  
는 아이들에게 조언한다.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가족이 분주해진다. 이  
렇게 사진 찍을 기회가 언제 또 오겠느냐며 딸과 아들 사이에 자리 잡는  
아빠 김기승 사우.

‘김치~, 와이키키~~~, 맥반석~!’

역시나 유쾌한 추임새를 곁들이며 즐겁게 식사와 촬영을 마친 가족. 그들  
에게 바람이 있다면 가족 모두의 건강이다.

“25년 근속한 남편이 자랑스러워요. 건강하게 앞으로도 일했으면 좋겠  
네요. 담배는 좀 끊고.”

아내의 말에 끊겠다고 다짐하는 김기승 사우다. 아내는 사보에 이 내용  
이 꼭 실려서 남편이 담배를 끊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남편은 사보  
에 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슬쩍 뒤로 물러선다. 특유의 웃음은 그대로다.  
“이제 우리의 또다른 가족인 개 2마리가 있는 집으로 가야죠, 우리 가족  
수고했고 딸은 연습 열심히 하고, 아들은 스텝어드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

다. 자, 이제 집에 가자!”

가족 스스로 집안이 개그콘서트 현장 같다고 자평한다. 가정으로 돌아가  
는 네 식구의 발걸음이 가볍기만 하다. 🌻

남편이 가족에게

이벤트 놀랐지? 알아서 잘 하는 우리 식구들, 언제나 그렇게 믿을  
테니 우리 즐겁게 잘 지내자.

아내가 남편에게

나에게 당신은 완벽한 남편이야.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좋은 아이  
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아이들이었으면 좋겠고, 남편! 담배는  
끊어 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항상 첫 번째로 ‘부모님’이라  
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바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외식 이벤트에 사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청 문의 sabo@s-oil.com



# 소중한 새 인연과 함께

# 알콩달콩 행복하려무나

갓 태어났을 때 눈이 동그랗고 콧날은 유난히 오뎅하던 딸의 모습이 이렇게도 생생한데, 다 자라 결혼을 했습니다. 딸의 두 손에 기쁨과 행복을 꼭 쥐어 보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신혼을 축복하려 합니다.

어느덧 30년이 흘러 우리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네. 딸과 보낸 세월이 이토록 빠르게 지나갈 줄 엄마는 미처 몰랐어. 네가 좋은 인연을 만나 한 가정을 이뤄 더할 수 없이 기쁘지만, 가슴속에 있던 무엇인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허전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구나. 그동안 같이 살면서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겪었는데 어찌 짧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니.

지금도 딸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 없어. 장미꽃 향기가 가득한 날이었지. 찡글찌글한 얼굴에 눈이 동그랗고 콧날은 어찌나 오뎅하던지. 그럴던 우리 혜진이가 성장해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네. 조금 더 있으면 엄마가 되겠지?

사랑하는 딸 혜진아! 결혼식 날 딸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서서는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 슬픔과 아픔의 기억은 모두 아빠가 거두고 너에겐 기쁨과 행복만 손에 꼬옥 쥐어 보낸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늘 좋은 생각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맺어져 있어. 그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길 바란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봉사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우리 가족 모두가 바란다. 

사랑하는 딸에게, 엄마가





1

# 성곽에 담긴 역사 배우며 소요(逍遙) 즐기는 ‘지락(至樂)의 시간’

## 청주 상당산성 성곽길

삼한시대에는 마한 땅이요, 백제 때는 상당현으로 불리며 군사적 요충지에 자리한 청주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면서 서원경으로 승격, 지방행정의 중심이 된다. 고려 태조 23년(940년) 지금의 지명으로 개칭하고, 우왕 3년(1377년) 흥덕사에서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간행한다. 조선조에는 수운 발달에 따라 충주가 부상했으나, 임진란을 겪은 뒤 지리적 역할이 중요해져 다시 호서지방의 중심에 선다. 충북 청주시 상당산에 위치한 상당산성(사적 제212호)은 속리산 북서쪽에서 뻗어온 한남금북정맥에 속하는데, 동쪽과 북쪽은 산과 계곡에 가로막혀 수성에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춘 막강 요새를 자랑한다. 서쪽으로는 청주시내는 물론 미호천평야와 증평평야까지 한눈에 조망된다. 철마다 다양한 야생화가 피고 깊은 숲이 있어 길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정문격인 남문(공남문)이 오늘 길 여행의 들머리. 초겨울 낭랑한 햇살을 가슴에 담으며 안쪽 옹벽을 끼어 올라 가파른 서쪽 능선을 타고 뺨은 성곽으로 발길을 옮긴다. 산비탈에 거의 수직으로 돌을 쌓은 성 밖과 달리 안쪽은 평탄하게 다진 흙길이 이어지다 바깥 성벽에 덧붙여 쌓은 치성(雉城)에 닿는다. 적을 빨리 관측하고 벽면에 붙은 적을 공격하기 쉽도록 한 ‘凸’ 모양의 시설로 우리나라 성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구조다. 대부분의 산성은 구불구불 이어져 치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곳은 웅성 없이 곧게 뻗어나갔기 때문에 치성을 뒤서 전력을 보강한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누각을 세워 포를 설치하면 ‘포루’가 되기 때문이다. ‘상당’이란 이름은 ‘높은 지위의 무리가 있다’는 뜻과 주변에 비해 ‘높은 곳’(491m)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축성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백제인들이 처음 토성을 쌓았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김

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이 30만 명을 동원하여 쌓았다는 기록이 있고 '울봉역의 북쪽에 있고 석축으로 둘레가 7,773척인데 성안에 큰 연못이 있다'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청주목 고적조도 기록한다. 임진란 때는 원군이 수축했고, 숙종 42년(1716년)부터 영조 23년(1747년)에 걸쳐 밑돌을 다듬어 턱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얹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퇴물림' 또는 '그랭이' 기법을 적용한 석성으로 개축했다. 둘레 4.3km, 내부면적 704,609㎡(21만 평)의 포곡식 성곽 축산 능선과 골짜기를 잇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완성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과 '비변사등록(조선 중·후기 국방과 재정의 최고의결기관인 비변사 회의기록)'에 따르면 "효종 2년 충청도 병마절도사영이 해미에서 청주로 옮겨왔다"고 적었다. '상당산성고금사적기'에는 "상당은 삼남의 요충이라 한 지방의 목구멍과 혀 같으니 급히 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왜구 침입이나 내란 같은 국가 비상시 한양과 경기지역은 북한산성에, 호서지역은 상당산성에 의지한다는 조선의 방어전략 때문인데, 청주가 한양의 중간 방어기지에서 영호남과 서울을 잇는 요충지로 주목된 결과다.

평지 읍성이 위태로울 때 장기 항전에 따른 대비로 농성에 돌입하는 최후의 보루가 산성이다. 여기에는 숨겨진 역사가 무궁하다. 남암문도 마찬가지로 암문이란 적의 눈을 피해 군사는 물론 식량이동을 쉽게 하도록 만든 비밀 문이다. 적에게 들켰을 때는 입구 양쪽에 쌓은 흙과 돌을 이용해 빨리 메울 수 있게 했다. 뒤쪽 숲에는 구룡사와 남악사의 절터가 확인됐는데, 억불정책을 유지했던 조선이 성안에 절을 세운 이유는? 당시 성의 보수·유지는 승군 몫이었고, 절은 상주해 있는 승군을 위한 배려였다.

1995년 발굴조사를 통해 위치가 확인된 서장대(제승당)를 지나 '호랑이가 활을 당긴다'는 서문에서 잠시 발을 멈춘다. 멀리 청주공항이 조망되는 상당산 정상 지형은 '활의 시위를 묶는 곳 같다' 해서 '활고자 미(弮)' 자를 써서 '미호문'이라

부른다. 보수공사 때문에 주변이 다소 어수선하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했던가. 숲속에 마련된 쉼터에서 잠시 다리심을 한다. "속도를 줄이고 인생을 즐겨라. 너무 빨리 가다 보면 주위 경관뿐만 아니라 어디로, 왜 가는지 모르게 된다"는 미국의 가수 겸 코미디언인 에디 캔터의 말을 되새기면서 다시 발바닥의 폭신함을 느끼려 성벽길을 이어간다.

서문에서 북벽을 거쳐 동암문에 이르는 2.2km 거리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어 지루하지 않다. 낙엽 깔린 길은 그늘 때문에 얇게 얼음이 끼어 미끄럽다. 산세가 험한 북벽, 지형 자체가 방어시설이어서 애초부터 (북)문도 만들지 않았고 성도 낮게 쌓았다.

한 무리의 길손들을 마주한다. 느릿한 걸음새는 서쪽을 향하고 행복감이 묻어나는 상큼한 표정이 살갑다. 일상의 무게에서 벗어나 바람의 시원함처럼 그저 자연의 풍광을 벗하며 즐거움을 만끽하는 일, 장자가 '지락(至樂)'이라 극찬한 소요(逍遙)다.

조심스런 내리막길이 동암문에서 멈춘다. 성벽 아래 비밀 문, 암문이다. 살짝 허리를 숙여 내려가니 벽 중간에 '패장한량(裨將閑良)'이란 한문 옆으로 글 3자가 심하게 훼손됐다. 동암문을 축조한 실무 책임자 '양덕부(梁德溥)'의 이름이다. 조선 최대 반란사건인 '이인좌의 난' 때 반군에 빌붙어 청주읍성의 성문을 열어 준 장본인이다. 이봉상은 이순신의 5대손, 청주읍성을 지키다 양덕부의 배신으로 이인좌에게 죽임을 당한다. "경종의 원수를 갚겠다"며 반군을 이끌고 한양으로 복상한 이인좌는 병조참판 오명항과 암행어사를 지낸 박문수에게 진압되고, 양덕부 일당은 청주 관아에서 참수당하고 사지가 찢겨죽는다.

그렇다면 공사실명제로 돌에 새겼던 이름 석 자는 누가 훼손했을까. "병마절도사 이봉상이 관기인 월례와 함께 있는데, 믿는 신하 비장 양덕부가 문을 열어 주었다"고 영조실록에 적혔듯이 역사는 암문을 완성한 공보다 반군과 내통하여 성문을 열어 준 역도로 기록했음을 기억할 필요



- 1 포곡식 구조의 상당산성은 골짜기를 둘러싼 산줄기를 따라 성을 쌓기 때문에 문을 통하지 않으면 성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적의 공격을 막기 적합한 시설이다.
- 2 충청병마절도사는 상당산성에 병마우후를 두고 승군 포함 3천500여 병력으로 하여금 산성 유지와 보수를 담당했다. 길손들이 산성마을에서 남문으로 오르고 있다.
- 3 사진 왼쪽은 1720년 상당산성 동암문 축조 책임자였던 양덕부의 이름이 훼손된 모습. 그는 1728년 당시 청주읍성의 비장(裨將)이었는데, 이인좌의 난에 반군이 청주성으로 물러오자 성문을 열어 준 인물로 기록됐다.
- 4 상당산성은 통일신라 이후 군사적 효용가치를 인정받았고 임진왜란 이후 한양 방어를 위한 석성으로 대대적으로 보수됐다. 사진은 남문 앞에 펼쳐진 잔디광장.



- 1 전시에 장수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작전 지휘소가 장대다. 사방이 탁 트인 명당에 자리하는데, 사진은 1992년 복원한 동장대 보화정이다.
- 2 홍수로 수문이 소실된 후 1943년 원래보다 많이 확장하여 만든 저수지.
- 3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를 찬탈한 세상을 조롱하면서 전국을 유랑했던 김시습 시비가 오후 햇살을 등지고 있다.
- 4 산성은 우암산 자락에 위치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 덕에 사극 <대조영>과 <태왕사신기>의 촬영 무대로도 유명해졌다. 사진은 진동이 남쪽으로 뻗어나간 모습이다.
- 5 상당산 둘레를 따라 그림 같은 모습으로 연결된 산성은 조선 중·후기 석성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남쪽에 위치한 치성을 길손들이 지나고 있다.
- 6 성벽 서쪽에서는 청주시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가 있다.

조선 후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당쟁(黨爭)이다. 국정 운영은 물론 사상과 교유, 혼맥까지 인간관계에 이르는 모든 현상의 핵심 요소다. 영조 4년(1728)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 또한 이의 연장이다. 서인과 남인의 일부세력이 “영조는 숙종의 친아들이 아니고, 경종을 독살했다”고 선전하면서 왕위계승의 부당성과 태군의 명분까지 확보하고 영조와 노론을 제거한 뒤 밀풍군(密豊君) 탄(坦)을 추대하려 일으킨 난이다. 무신년(戊申年)에 발생했기에 ‘무신란’이라고도 한다.

영조 4년 3월, 청주의 한 산성 앞 숲으로 상복을 입은 상제와 조문객들이 곡을 하며 상여가 올라왔다. 성안 군사들은 상여행렬을 내려 보며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 그런데 상여에는 시신이 없었다. 그날 밤, 영조에 반기를 든 무리가 상여에 숨긴 무기로 무장한 채 나와 결국 청주읍성과 상당산성은 함락된다. 조선판 ‘트로이 목마’가 성공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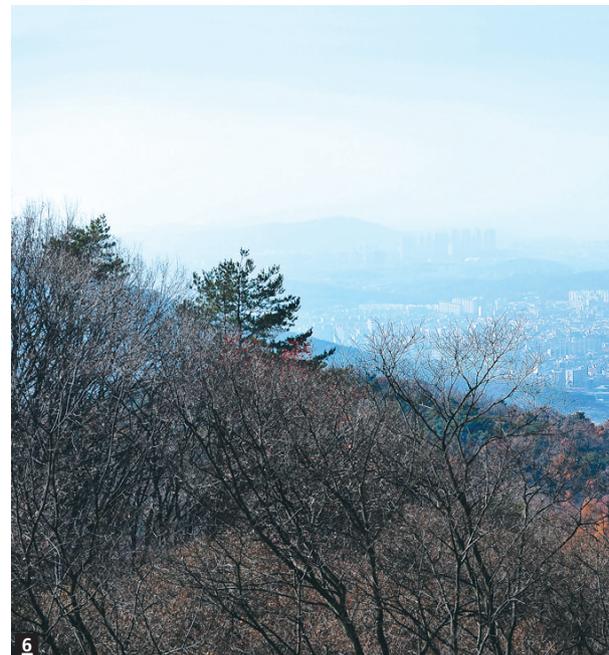
영조는 자신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란에 분노했고, 아버지 숙종 때부터 공들였던 성이 반군에게 함락된 사실을 믿지 못했다. 더욱이 경종 독살설에 대해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니 사관은 기록하지 말라”는 명까지 내렸을 정도. 반란이 진압되자 상당산성의 정치·군사적 중요성을 들어 운주현 중수와 포루 5개소를 세우는 등 보수공사를 지속한다.

1764년 상당산성의 그림을 그려 올리라는 명이 있었는데 상당산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엿보는 대목이다. 충청병사 이태상은 장계와 함께 동문·서문·남문과 암문 2곳, 15개의 포루, 운주현과 수첩군관 250명이 생활한 수첩군 관청, 군기고와 화약고, 구룡사 등 사찰까지 모두 3백 칸이 넘는 건물을 갖춘 ‘상당산성도’를 왕에게 바쳤다.

‘편당을 만들지 않고 두루 화합함은 군자의 공평한 마음이고, 그러지 아니하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성군관에 있는 탕평비문에 적힌 글귀를 떠올리면서 내리막길로 접어든다. 저 아래 골짜기에 무사석을 5단으로 쌓고 그 위에 장대석 2개를 올려놓아 안정감을 주는 진동문(동문)이 보인다. 예서는 바로 산성마을로 들어갈 수 있으나, 가던 길을 이어가니 제법 너른 마당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복원된 동장대(보화정)를 만난다. 맹자의 ‘천시불여지리(天時不如地利) 지리불여인화(地利不如人和)’에서 따왔는데, ‘하늘이 주는 좋은 때는 지리적 이로우만 못하고, 지리적 이로우도 사람의 화

합만 못하다’는 뜻에서 취했다. 장대란 전시에 장수가 군사들에게 군령을 내리는 지휘소, 보통 사방이 탁 트인 명당에 자리한다. 지난 1992년 동장대가 복원되었고, 서장대는 현재 복원공사 중이다.



꽃다운 풀 향기 짙신에 스며들고  
 활짝 갠 풍광 싱그럽기도 하여라  
 들꽃마다 벌이와 꽃잎에 입 맞추고  
 살찐 고사리 비 개인 뒤라 더욱 향긋해  
 웅장도 하여라, 아득하게 펼쳐진 산하  
 의기도 드높구나 산성마루 드높으니  
 날이 저문들 대수랴, 보고 또 본다네  
 내일이면 바로 남방의 나그네 일터니.

· '산성에서[遊山城] 김시습

동장대를 내려오면 산성마을. 식당가에서 늦은 점심을 한 뒤 1943년 홍수로 없어진 옛 수문 자리에 들어선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 계단을 따라 오른다. 출발지인 남문이다. 유모차를 대동한 가족이 잔디광장에 앉아 소풍을 즐기는 모습을 뒤로 하고 내려서니, 사육신의 한 사람, 김시습 시비가 햇살을 등에 진 채 말없이 서 있다.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를 찬탈한 세상을 조롱하며 전국을 유랑할 때 이곳에서 지었다는 '산성에서[遊山城]'란 시를 읊조리며, 자분자분 걸어온 발자국마다 역사가 살아날 것 같은 공간에서 눈과 다리가 호사를 누린 약 2시간의 순간을 마감한다. 🌻





♡  
 양동근 선수는  
 팀의 플레이를 좌우할 만큼  
 존재감이 뚜렷하다  
 그는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최상'의 팀으로 완성시킨다  
 ♡

인성 갑  
 멘탈 갑  
 실력 갑

## 성실의 천재

검사1과  
 이상현 사우의 롤모델  
 프로농구선수 '양동근'

## 프로농구선수 ‘양동근’

글 | 이상현(검사1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 겨울이면 농구대잔치를 계속 중계해줬는데 재밌었어요. 근데 직접 하니깐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초고 3학년 때 아예 농구 선수를 하자고 마음먹었죠. 처음 농구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물론 그 때가 100이라면 지금은 숫자가 조금 낮아졌겠죠. 이렇게 행복하고 재미있는 것을 오랫동안 제대로 하려면 저 도 노력을 해야죠.”

농구선수가 되기로 결심한 양동근은 부모님을 2년이나 즐라 농구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했다. 굳은 결심을 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애쓴 어린 시절 그의 모습이 성격을 대변하는 듯하다.

울산모비스 피버스 농구단은 양동근 선수의 출전 유무에 따라 완전히 다른 팀이 된다. 안정적인 팀 리딩은 포인트 가드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인데 그가 있어 나머지 4명의 선수들은 조금해하지 않고 플레이한다. 또 국가대표 농구팀에 뽑혀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주장인 그의 역할은 적지 않았다.

양동근은 천재형 선수는 아니다. 꾸준하고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으로 현재 우리나라로 34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강철체력을 자랑한다. 나이가 프로농구 최고의 포인트가드로 손꼽히면서도 항상 겸손하고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화려하기 보다 성실함으로 코트를 누비기에 더욱 본받을만하다. 농구인들도 인정하는 인성 갑, 멘탈 갑, 실력 갑 양동근 선수! 앞으로도 더욱 흥하라~!

### 단단한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근면성실

프로농구선수 양동근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농구를 시작해 2004년 프로에 데뷔했다. 국가대표 농구팀 주장으로 최근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지만 그의 선수생활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스스로의 선수생활을 “마음먹은 대로 되지만은 않았다”고 자평했다. 농구선수치고는 작은 키인 181cm. 중학교 시절에는 시합에 뛸 기회가 거의 없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도 기회는 많지 않았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쯤 어느 대학에 가게 될지 거의 정해지곤 하는데 10월이 되어서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 그 때는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도 여기까지 재미있게 잘했으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던 차에 막바지로 한 양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대학교 진학도, 프로팀 트레이드도, 감독님을 만난 것도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양동근은 운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으로 노력을 택했다. 좀 더 신경을 쓰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답다. 행복하고 재미있는 것을 오랫동안 제대로 하려면 노력해야 한다. 그에게 행복하고 재미있는 건 농구다.

빠놓지 않고 쓰는 일기는 양동근의 또 다른 무기다. 시합 전에 이런 걸 해 봐야겠다고 적어놓고 시합이 끝난 뒤에는 반성할 부분을 평가한다. 은퇴할 때까지 일기쓰기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양동근 선수는 소통하는 지도자를 꿈꾼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감독님을 동경한다고 말하는데, 지금의 울산모비스 감독님이 그가 꿈꾸는 지도자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하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도 진짜 잘 할 수 있게 방향을 설정해주는 지도자는 흔치 않다면서 감독님의 코멘트를 분석해 컴퓨터에 저장하기까지 한다.

훌륭한 프로농구선수로 마냥 단단해 보이는 양동근 선수도 오늘을 맞이하기까지 부지런한 실천과 노력의 과정이 있었다. 🌟



# 환상적인 볼거리 가득한 겨울왕국



## 칠갑산얼음분수축제

일 시 2014년 12월 20~22일(3일간)

장 소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223-35(천장리 164-1) 알프스마을

문 의 www.alpsvill.com

### 칠갑산 산기슭에 위치한 한국의 알프스

충청남도 청양군에는 절경으로 유명한 칠갑산이 있는데 이곳에 알프스마을이 자리해 있다. 칠갑산과 더불어 농촌 특유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알프스마을에는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로 알려진 천장호 출렁다리가 있다. 또, 도·농교류센터 웰빙체험농원, 축구장, 수영장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어 방문자가 조금씩 느끼는 곳이다.

마을이 천장처럼 높다 해서 천장리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는데, 마을 옆으로는 아름다운 천장호수가 자리하고 있어 맑고 상쾌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한 번 찾은 이가 다시 찾고 싶어지는 힐링의 마을로도 불린다.

알프스마을에서는 각 계절마다 칠갑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절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2008년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칠갑산얼음분수축제는 매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농한기에 지역경제의 침체기를 이겨내고자 주민들이 만들었다는 이 축제에서 참가자는 하얀 얼음이 칠갑산의 환상적인 풍경을 뒤덮은 장관을 즐길 수 있다. 분수처럼 뿜어져 나온 물을 얼려 만든 얼음분수 조형물을 보면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오감만족 겨울 체험**

얼음분수축제에는 10m 높이에 달하는 얼음분수가 50여 점이 설치되는데 근처 냇물과 산세가 조화를 이뤄 더욱 멋진 광경을 선보인다. 이글루, 남대문 등 얼음 조각물도 관광객을 반긴다. 아이들은 눈으로 만든 만화 캐릭터 조형물에 곤잘 시선을 빼앗기곤 한다.

놀이 거리, 먹을거리도 다양하다.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빙어낚시, 맨손 빙어잡기, 소썰매 타기, 이양기 썰매 등 이색적인 놀이 거리가 여럿이다. 여름철 만들어진 조롱박 터널에 LED 조명과 차광막을 사용해 만든 봅슬레이장에서 즐기는 봅슬레이는 색다른 재미를 준다. 마치 우주에 들어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밖에도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썰매장을 준비한다. 실컷 놀다 출출해지면 곳곳에서 가래떡, 군고구마, 군옥수수, 군밤을 구워 먹을 수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고즈넉한 겨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얼음분수축제. 얼음 위를 뛰놀다 보면 어느새 겨울 왕국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이다. 🌿

얼음분수축제에는 10m 높이에 달하는 얼음분수가 50여 점이 설치되는데 근처 냇물과 산세가 조화를 이뤄 더욱 멋진 광경을 선보인다. 이글루,



▲▲ 얼음분수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  
▲ 군밤 등 전통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칠갑산얼음분수축제  
오실 때  
청양 송학주유소  
꼭 들려주세요!

**칠갑산 맛집 하면 역시  
'칠갑산 맛집'**

칠갑산에 명소이자 천 년 넘은 역사가 숨 쉬는 절 장곡사 입구에는 맛집의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칠갑산 맛집'이 있다. 묵, 전을 비롯해 닭과 오리요리 등이 준비되어있지만 역시 푸짐한 산채비빔밥이 '칠갑산 맛집'의 자랑이다. 고기보다 더 고기 같은 콩고기 요리도 인상적이니 방문해보길 권한다.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119-39 (장곡리 67-6)  
☎ 041)943-5912

아산지사 이성호 사우

**송학주유소**



송학주유소는 청양고속로 유명한 청양군에 소재하고 청양군청에서 홍성 방면으로 가는 29번국도변에 위치해 있다. 세차기를 보유하고 있어 주유고객에게 세차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주유소다.

충남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468 (학당리 470-5)  
☎ 041)942-5145



## 소금과도 같은

# 우리네 아버지의 삶

〈소금〉 박범신

〈소금〉은 ‘영원한 청년작가’라 불리는 〈은교〉의 박범신이 데뷔 40년을 맞아 펴낸 40번째 장편소설이다. 2년간 자신의 고향인 논산으로 내려가 쓴 〈소금〉은 자본의 폭력성을 다룬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이다. 짠맛,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등 모든 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에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아버지들의 인생을 이입해 전한다. 또한 그들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를 통해 늙어가는 우리 아버지들의 삶을 재조명한다. 〈소금〉은 가족 이야기를 다룬 보통의 소설들과 다르게 접근한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를 꼭 돌로 나눠야 한다면, 하나는 스스로 가축을 꿈꾸는 아버지, 다른 하나는 처자식이 가축하기를 꿈꾸는 아버지로 나눌 수 있었다.”라는 구절에 맞게 ‘가축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는다. 젊은 세대들이 한 잔에 만 원에 달하는 커피를 마실 때 번두리의 컴컴한 작업장 뒤편에서 인스턴트커피를 마시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통해 자본주의의 현실을 비꼬고, 동시에 자식들의 빨대가 되어버린 우리네 아버지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자본의 폭력성은 아버지들을 집 밖으로 내몰았고, 그들은 자식과 화해하지도,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자식들 또한 꿈을 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몸을 던진 아버지에게 도리어 받은 것이 없다며 비판을 내뿜는다. 이런 현실에도 아버지는 가족과 세상에 대한 불만보다 혼자라는 외로움에 더 괴로워한다.

이 소설이 주목받는 이유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사실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전에 한 인간이며, 처음부터 부모라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 또한 젊은 시절 꿈과 사랑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아버지가 아버지이기 이전에, 선명우 씨로서……그냥 사람이었다는 거…… 너무 늦게 알아차려 죄송하다”는 아들 시우의 말처럼 〈소금〉은 아버지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늙어가는 한 인간의 인생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한다. 🌻

### 〈소금〉 이렇게 읽었습니다

#### 임영섭(운활유1과)

사회문제를 주로 다뤘던 소설가 박범신이 〈소금〉이라는 새 소설을 냈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묘한 이질감과 함께 흥미가 생겨 도서를 신청해 읽었다.

책을 읽는 내내 가난한 집을 구원해야 하는 짐을 떠맡은 소년의 무거운 어깨가 느껴졌다. 아버지의 행방불명과 소년이 아버지의 분신처럼 여기는 소금에 대한 회상,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멍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새로운 가족을 꾸려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가슴을 찡하게 했다.

격동기를 산 우리 시대의 아버지와 다음 시대의 모든 아버지에 대한 소금 같은 이야기라는 느낌을 받았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듯 가족의 존재 모두가 소금이라고 느껴질 만큼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설을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 본 도서는 지난 11월 1~30일 공장 자료실에서 높은 대여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 문화 콘텐츠

〈소금〉과 함께 즐기면 좋을 타 장르 콘텐츠

### 영화

####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관계

개봉 2013. 12. 19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주연 후쿠야마 마사하루, 오노 마치코



성공한 비즈니스맨 '료타'는 산부인과로부터 전화를 받고 6년 동안 키워온 아들이 병원에서 바뀐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는 '아버지

가 된다는 것'과 아들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깊은 사색에 빠진다. 2013년 칸영화제 심사위원상부터 세계의 영화제를 휩쓴 화제작으로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절제된 연출력이 돋보이는 영화다. 실제 고레에다 감독이 아버지가 된 후 느낀 감정과 경험이 녹아있어 더욱 주목받았다.

### 연극

#### 가족이란 이름의 부족 가족, 그들만의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

일시 2014.11.8.~12.14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출연 남명렬, 남기애, 김준원 등



연극 〈가족이란 이름의 부족〉은 청각장애 인인 막내아들에게 '수화'를 가르치지 않고 정상인의 언어에 적응하며 살도록 키워온 한 유대인 가족의 이야기이다. 영국

의 극작가 니나 레인(Nina Raine)은 '가족이란 그 구성원들이 믿는 것,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전수하고 공유하고 싶어 하는 하나의 부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이 희곡을 썼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즈는 이 작품을 '우리가 침묵 속에서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라 평했다.

### 드라마

#### 추적자 THE CHASER 사랑하는 딸 앞에 법도 권력도 무의미

편성 SBS  
방영 2012.5.28 ~ 2012.7.17  
출연 손현주, 김상중, 고준희, 류승수 외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손현주 분)가 사건의 배후에 있는 대권후보자 강동윤(김상중 분)을 추적하며 정계의 비리와 자본주의의 실태를 파헤치는 드라

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는 정치인들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큰 인기를 끌었다. 아버지 역으로 열연한 손현주가 49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남자 최우수연기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중에서 ▲  
연극 '가족이란 이름의 부족' 중에서 ▶



#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나라

## 활자 중독

책이 아니면 잡지, 잡지가 아니면 전단지나 거리의 간판까지...  
읽을 수 있는 글자라면 닥치는 대로 탐독하는 것이 '활자 중독'이다.  
'글자를 읽는 것도 중독이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  
심하면 병이 된다.



- 글 심는 순서**
- 알코올 중독
  - 스마트폰 중독
  - 담배 중독
  - 쇼핑 중독
  - 카페인 중독
  - 게임 중독
  - 탄수화물 중독
  - 관계 중독
  - 도박 중독
  - 운동 중독
  - 일 중독
  - 활자 중독

## 01

## 책벌레들의 비밀

여행을 가거나 외출 전에 책부터 챙기는 사람, 화장실에 들어갈 때 읽을 거리를 찾는 사람은 활자 중독을 의심해봐야 한다. 활자 중독은 계속 글을 읽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증세로 대중들에게는 생소한 증상이다. 독서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 중 상당수가 활자 중독을 앓고 있지만, 역으로 '활자 중독이 곧 다독'이란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손쉽게 다양한 기사와 글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기기를 손에서 떼어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중독자들도 실제로는 활자 중독에 걸린 것일 수 있다. 주위에 널린 수많은 활자(글자)들을 끝없이 탐독하는 것 자체가 활자 중독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중독으로 오해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02

## 미화된 활자중독

활자 중독이 보다 익숙하게 다뤄진 것은 정치인 안철수와 배우 윤시후가 '나는 활자 중독자'라고 밝힌 뒤다. 이를 대중이 성공의 비법, 연기의 비결로 받아들이면서 활자 중독은 그 이면과 다르게 미화되었다. 실제 중증 활자 중독을 앓고 있는 환자 상당수는 방송에 나온 것처럼 방대한 지식·정보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증세가 심해질수록 읽는다는 행위 자체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다. 이외에도 활자 중독자들은 글을 읽는 데 열중해 출근을 못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타인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글자를 찾기 때문에 결국 사회와도 단절된다. 이처럼 활자 중독은 예방하고 고쳐야 할 '중독'이자 '정신질환'이다.

## 03

## 자기 자신을 마주보기

일부 사람들은 '왜 글자를 읽는 것에 중독되는 것일까?' 의아해할 수 있지만, 활자 중독에 걸리는 원인은 다른 중독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활자 중독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직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평소 이동하는 시간에 수첩을 준비하여 자신의 마음속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적는 등 능동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조금씩 자기 안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생각을 비우는 명상훈련은 수많은 글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도움이 된다. 🌸

## Tip

## 활자 중독 자가진단 테스트

8개 이하 : 양호

9~14개 : 활자 중독 초기

15개 이상 : 활자 중독

- 화장실에 갈 때 아무리 급해도 신문이나 잡지, 책을 꼭 챙긴다.
- 만약 읽을거리를 챙기지 못할 경우 주변에 보이는 활자들을 찾아 읽는다.
- 광고와 주식시세를 포함하여 신문의 모든 글자를 읽어본 적이 있다.
- 대형서점에 가면 평균 3시간 이상 서 있다.
- 책 냄새를 좋아하며 5가지 이상의 책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로 책이나 잡지, 신문을 읽는다.
- 집을 떠날 때 꼭 읽을거리를 챙긴다.
- 아무리 비싼 책이라도 구매를 망설임 없이 하고 전혀 아깝지 않다.
- 인터넷 서핑 중독증세가 있다.
- 글쓰기, 채팅보다 눈으로만 보는 것을 즐긴다.
- 책을 읽다가 약속시간에 늦는 경우가 많다.
- 맞춤법에 민감하다.
- 수업시간에 몰래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
- 식사할 때 책을 읽다가 밥과 찌개가 식은 적이 있다.
- 밤에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이불을 쓰고 책을 읽은 적이 있다.
- 고3 때 나 때문에 집에서 신문을 끊은 적이 있다.
- 시험 전날 밤 책을 보느라 밤을 새거나 숙제를 못한 적이 있다.
- 지하철 노선도는 아무리 오래 봐도 재미있다.



## 독자퀴즈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모두 다섯 군데)

## 지난호 퀴즈 당첨자

### 주유상품권

박해진 정유공정과  
제갈경 세무팀  
김신경 군산저유소  
추명찬 고객.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 USB저장장치

정성민 Aromatics생산1과  
이현규 송유/동력공정과  
홍성훈 에너지관리팀  
손유리 금동주유소.전북 김제시 금산면



## 새로운 도약을 향한 성장의 기록

사보 편집실에서는 사우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개인은 물론 팀/과, 부/부문 단위의 소식을 알려주시면 뜻있는 사료로서 기록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사가 마련되어 있으니  
사보 편집실의 문을 적극 두드려 주십시오.  
참여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sabo@s-oil.com](mailto:sabo@s-oil.com)



**<최강 팀> 공정자동화팀**

뛰어난 실적과 최고 팀워크를 자랑하는 모습에서 에쓰-오일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영재(고객.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소식 모아보기> 유남규 감독 · 탁구단 공장 방문**

나의 취미가 탁구여서 탁구단 기사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홍재근(수송팀 흥영목 사우 자녀)



**<두런두런 수다방> 지리산 증주 산행기**

부녀가 함께한 산행은 아름답고 좋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권영자(고객.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가족 이야기> 군산저유소 이운세 사우 가족**

단란한 가족의 뜻깊은 하루를 함께하니 제 마음도 덩달아 행복해지네요.

이준임(고객.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No.1 주유소> 앨림하이오일주유소**

대표자의 직원 사랑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성공은 거저 이뤄지는 게 아니네요.

강상철(고객.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견고 싶은 길> 태백 한강 발원지 탐방길**

우리나라 3대강이 시작되는 곳에 가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네요.

이종민(고객.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야호! 축제다> 거제섬꽃축제**

여행 정보가 알차습니다. 좋은 내용,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여진수(자재관리과)



**<열린 서재> 기움 뮈소 '내일'**

직원의 짧은 서평이 마음에 와 닿아 책 읽는 재미에 빠지게 됐습니다.

정은영(고객.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마음 읽기> 일 중독**

일만 하고 쉴 줄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기사가 묵직한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홍경석(고객.대전시 서구 문정로)



## 9 Corporate Initiatives

9가지 전사전략과제로  
미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